

범죄 인식 없어...용돈벌이 참여 수두룩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사기 근절하자

<下> 젊어지는 보험사기 범죄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10~20대들이 무더기로 지난해 11월 경찰에 붙잡혔다. A(20)씨 등 10명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구를 비롯해 광주 일대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4000여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이 보이면 일부러 속도를 내 사고를 유발하고, 병원 치료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이다.

#. 광주와 영광 일대에서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원을 가로챈 10~20대 30여명도 지난해 11월 붙잡혔다. A(20)씨 일당 중 11명은 미성년자였다. A씨는 차량 동승자가 많아 합의금이 많아지는 점을 노려 동네 후배들에게 "차에 타고만 있으면 된다"면서 "한 번에 30만원씩 줄게. 절대 안 걸려, 쉽게 돈을 벌 수 있지 않느냐"며 유인해 범행에 가담시켰다.

보험사기가 지능화·조직화되는데다, 아직 사회경험이나 도덕적 인식이 부족한 10~20대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보험사기가 강·절대 같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탓에, 사회경험이 적은 미성년자나 청년들의

지난해 10~20대 1만8619명 적발 전년대비 19% 늘어...연령대별 최고 렌터카·오토바이 배달 확산 주요인 강력 단속과 함께 인식 변화 필요

보험사기 연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0~20대들 또래의 조직적·반복적 보험사기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의 목소리도 높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20대 청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1만8619명 전년(1만5668명)보다 18.8% 늘어났다. 특히 10대 청소년 보험사기가 전년보다 24.2%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50대가 24.9%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대비(25.9%) 보다 감소했다. 10대는 1.9%에서 2.1%로 증가했고, 20대도 15.0%에서 16.7%로 늘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 보면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65.8%(5914억원)를 차지하고 고의 사고 15.4%(1385억원), 자동차사고 피해과장 9.8%(878억원) 순이다. 전년도에 비해 허위·과다입원(73.2%→65.8%)은 감소한 반면, 고의충돌(12.5%→15.4%) 및 자동차사고 과장정구(6.1%→9.8%)는 증가했다.

보험업계는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 증가와 이륜차 이용 배달서비스 활성화로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렌터카 등은 사고피해를 차주나 업체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이 자주 이용하는 경향이 높다는 분석이다. 또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달서비스 활성화가 미성년자 보험사기 증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이처럼 큰 죄의식 없이 용돈 벌러 참여한 10~20대의 보험사기 가담을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비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것이다. 범죄라는 인식 없이 피해를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험금을 부풀려 타내는 보험사기가 점차 늘다 보면 '용돈벌이'가 '직업' (?)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인 것이다.

결국 보험사기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전 국민적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주장이다.

보험 사기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저지르다 보면 결국 '국민 범죄'로 범질수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어린 나이에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보험사기로 누수된 만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피해가 모든 보험가입자에게 미치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과 함께 무엇보다 보험사기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광주다운'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산구 소촌 철도건설목 지하차도 개통

왕복 2차선 185m 개설 완료

국가철도공단 호남본부는 광주시 광산구에 위치한 소촌 철도건설목 지하차도 입체화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했다.

지난 1922년에 건설된 소촌 철도건설목은 광주선-경전선 등 2개 철도노선을 통과하는 건설목으로, 노후되고 안전에 취약했을 뿐 아니라 열차 운행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광주시와 함께 2015년부터 사업

비 167억원을 투입해 왕복 2차선 연장 185m 길이의 지하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이번에 개통하게 되었다.

김남진 호남본부장은 "이번 소촌건설목 지하차도 입체화 공사로 광주시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열차 안전 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철도 운행을 위해 선로변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교육청 '환경교육 실천운동' 영상 배포

각급 학교 수업자료 활용

전남교육청이 제26회 환경의 날(5월)을 맞아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환경교육 실천 운동' 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탑재해 각급 학교에서 수업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8분 15초 길이의 이 영상에는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인류 위협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환경교육 체험활동 ▲친환경 생태학교(목포 북교초등학교) 환경교육과 학생활동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하는 실천 운동 등이 담겨 있다.

촬영에 참여한 목포 북교초등학교 안남우 학생은 "도롱뇽을 만져보고 꽃과 나무를 보는 수업은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부모 김수안 씨는 "아이들과 함께 환경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도록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 학부모들도 동참하겠다"고 실천 의지를 나타냈다.

장석용 전남도교육감은 영상을 통해 "환경의 날을 계기로 쓰레기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을 통해 탄소 중립을 실천하자"며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환경 실천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영상은 전남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전남교육TV)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뇌심혈관 질환 위험 노동자 건강진단비 지원

안전보건공단, 비용 80%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6월 뇌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는 노동자에게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특수고용직 포함) 가운데 고혈압과 비만 등 뇌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다. 공단은 경비원, 택시·버스기사, 택배기사, 배달

종사자와 같이 야간 근무 등으로 뇌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직종의 노동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이달 7일부터 공단 누리집(kosha.or.kr)으로 받는다. 공단은 신청자 중 약 1만 5000명을 선정해 건강진단 비용의 80%(1인당 약 19만원)를 지원한다. 건강진단은 전국 26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지원 대상자는 건강진단을 받은 뒤에도 주기적인 건강상담과 근로자건강센터의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광일보호헌대상 수상 영광의 얼굴들 제48회 광일보호헌대상(光日報勳大賞) 시상식이 6일 오전 광주시 남구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열린 가운데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좌측부터 손승연(상이군경-71)씨, 박삼순(중상이군경 차-77)씨, 신영숙(공상군경 유족 차-88)씨, 정성채(전물군경 유족 자-67)씨, 고병돈(특별부문-76)씨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MG지역상생프로젝트
내수경제 살리기

창립40주년 및 525새마을금고 날 이벤트!!

- | | |
|--|--|
| <p>대 상 대광새마을금고 MG체크카드 회원</p> <p>혜 택 - 하나, 5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고급접시세트
- 둘, 3만원이상(영수증 합산 가능) 밀폐용기 세트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프랜차이즈매장 제외</p> | <p>내 용 MG체크카드 이용자</p> <p>신 청 MG체크카드 사용영수증 대광새마을금고 방문제출 <회원별 1회 한함(중복지급불가)>
※ 선착순 선물 지급(물품소진시 조기종료)</p> |
|--|--|



본점(계림오거리) 062)222-5851

서남지점(문화전당역) 062)227-1532

자산지점(법원정문 앞) 062)222-1431